

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30 한중 새시대 중국의 꿈, 한국의 희망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캐드난마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당신의 여자>
9 40 신문이야기 풀리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40 다섯남자의 오머니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발간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40 뉴스와이드	00 여풍담당 55 바른말 고운말(재)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재)	00 주말드라마 <금나와라 똑딱>(재)	00 SBS생활경제 40 KBC생활뉴스
12 40 뉴스와이드	00 KBS 뉴스12	50 위기탈출 남버원(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금나와라 똑딱>(재)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1 00 그대 그 사람(재)	00 KBS 걸작선 <아이리스>(재)	00 비타민(재)	20 양코르 MBC다큐프라임 <그린에서 나지에 도전하는 사람들>	30 KBC 특별기획 하늘에서 본 남도 <니주시>
2 10 토티링평평	00 KBS뉴스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10 VJ특공대(재)	10 자원봉사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스페셜	00 SBS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20 직언직실	00 노인 세상에 말줄달다 20 히든 챔피언(재)	00 KBS 뉴스타임 10 오감각 세상엔 맛있는(재) 35 후두스 미니미니	00 MBC 3시 뉴스 10 똑딱 아저씨 베스트	10 금요일엔 수다대(재)
4 30 캐드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을 잇는 담쟁이>	00 최강한체 미스마스터 30 TV 유치원	00 우리 아이 뇌를 깨우는 101가지 비밀(재) 30 포르로 방울이 친구들	00 매일얼마 30 꾸러기 탐구생활
5 40 뉴스와이드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두리몽실 문계공행(재) 30 명랑직장백서 <열정시대>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프리미드 15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사방의 크레파스
6 00 뉴스현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고향을 부탁해	05 세상발견 유레카
7 20 불멸의 국가대표(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밤상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웃년이 주의보>
8 30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	25 일일연속극 <저서이만 감천>	2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황금카메라	55 MBC 특별기획 <구암 허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배란다쇼	
10 00 웰컴 투 시월드	00 KBS 파노라마 50 콘서트 필드	00 수목드라마 <칼과 꽃>	00 수목미니시리즈 <여왕의 교실>	00 드라마스페셜 <나의 목소리가 들려>
11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타임	10 해피 투게더	20 황금어장 <투플릭도사>	20 자기가 <백년순남>
12 10 명랑해결단(재) ①:20 이영돈PD 논리로 풀다(재)	00 KBS 글로벌24 40 소포드 하이리이트 ①:00 KBS 뉴스 10 KBS 걸작다큐멘터리(재)	30 세상의 모든 다큐 <우리가 몰랐던 인도양 여행>	40 MBC 뉴스24 ①:00 소포드 하이리이트 15 MBC다큐프라임	40 SBS 토론 공감



슈퍼스타 K5

“오디션의 본질 보여줄 것”

‘국민의 선택’ 제도 신설 ... 내달 9일 첫 방송

국내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 엘리트 ‘슈퍼스타 K’의 새로운 시즌이 돌아온다. 이번에는 평균 경력 24년의 베테랑 남성 뮤지션 셋으로 심사위원진을 꾸렸다.

이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이선영 PD는 지난 16일 오후 종로구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슈퍼스타 K5’ 제작발표회에서 “이번 시즌의 주제 ‘기적을 다시 한번’에 걸맞게 대국민 오디션의 본질을 다시 돌아가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PD는 이어 “보여줄 듯 안 보여주는 편집의 ‘존독존독함’을 의미하는 ‘악마의 편집’은 이번에도 계속되겠지만, 사건이나 맥락을 왜곡하는 편집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 심사위원 모두 남성 뮤지션으로 구성되면서 이호리, 엄정화, 윤미래로 이어졌던 여성 심사위원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이 PD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시청자의 피로도가 심한 부분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숙제”라며 “여성 심사위원에 집중해보는 다양한 색을 지닌 여러 장르의 인재를 뽑기 위해 참가자를 색다른 시선으로 봐줄 수 있는 눈을 모시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다섯 시즌 내리 심사위원을 맡은 이호리는 “슈스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 함께 웃고 운다는 것”이라며 “예선에서는 공군 심사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고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매 시즌 ‘토크’이 10명씩 나왔는데 ‘총 100명이 될 때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바람이 있다”며 “지난 시즌 유행어 ‘어서와’가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됐는데 올해도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좋겠다(웃음)”고 너스레를 떨었다.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합류한 이호리에 대해서는 “시한폭탄 같다”면서도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적극 추천했다. 그의 숨은 끼를 시청자들이 검증하면 좋겠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한 시즌 만에 다시 심사위원으로 돌아온 윤종신은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다”며 “예전에는 참가자를 어이없이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줘야 한다. 참가자의 실력 자체가 진화했다”고 돌아온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실 심사에서 이호철 형에게 의지하는데 기본적으로 성향이 다르다 보니 방송에서 견제도 비춰지는 것 같다”며 “시청자도 저희의 (출연자에 대한) ‘주관’이 맘에 들지 않으면 투표로 보여주시면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날 신곡을 발표한 ‘슈퍼스타 K2’ 출신 강승윤에 대해서 “노래가 좋고 세련돼서 ‘역시 YG’라는 생각을 했다. 조금 일찍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멋진 청년이 돼서 좋은 노래를 들고 나와 뿌듯하다”고 말했다.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2회 연장

8월 1일 18부 종영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극본 박해연, 연출 조수원)가 2회를 연장해 다음 달 1일 18부로 종영했다.

SBS는 17일 “극중 혜성과 수하, 관우의 러브라인과 민준과 사건 등 아직 풀어야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어 2회 연장을 결정했

다”며 “마지막까지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16부로 기획된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법정 드라마와 로맨스, 스릴러 등 복합 장르의 매력과 배우들의 호연에 힘입어 전국 시청률 20%를 돌파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연장으로 후속드라마인 소지섭, 공효진 주연의 ‘주군의 태양’은 다음 달 7일 첫선을 보인다.



**EBS**

06:00 건강환 아침	09:30 피들리	13:40 초등 6년 여름방학생활	18:45 정글북
06:10 한국기행 <삼척>	09:40 개미	14:05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19:00 EBS 뉴스
06:30 미래 직업, 또는 직업 <인생을 현실로, 애니메이션 기획자>	09:50 지구를 지켜라	15:00 제로니모의 모험	19:25 지식네트워크
07:00 곤	10:10 세계대미끼	15:30 비두와 친구들	19:30 세계의 산
07:15 정글북	(지상낙원을 찾아서, 동티베트 4부 - 마음속의 해와 달 메리실산)	15:45 마이 모험	19:3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07:30 마이의 모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박연경의 행복이 찾아오는 요리 - 시금치 베이컨볶음과 더덕 목양채>	16:00 당동명 유치원 1~2(재)	20:50 세계대미끼
07:45 부흥! 부흥! 부흥미즈	11:20 부모	16:20 피들리	<미국 지질학 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2	12:00 EBS 정오 뉴스	16:30 꼬미버스 타임(재)	21:30 한국기행 <이순신의 바다>
08:20 시계마을 타기락	12:1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17:00 방귀대장 똥똥이(재)	21: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08:35 꼬미버스 타임	13:00 초등 2년 여름방학생활	17:10 시계마을 타기락(재)	22:45 국화집
08:50 춤추는 곰 공야	13:20 초등 4년 여름방학생활	17:25 부흥! 부흥! 부흥미즈(재)	<인도네시아 가구공작 2부>
09:00 방귀대장 똥똥이		17:40 생방송 특목 보너스1~4	23:15 EBS 인문학 특강
09:15 꾸러기부보논리		18:30 곤	24:05 EBS 스페이스 1~2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11:40 <화학II>
00:50 내신 6강	<수학II> 12:30 박복의 이수리 만나는 경제
01:40 포스	<문학I> 13:00 탐산전 <생명과학II>
02:30 <적분과 통계>	14:00 <지구과학II>
03:20 <기하와 벡터>	15:00 EBS N제 <사회문화>
04:10 <수학II> 17:00 인턴넷 수능 <수학I A형>	18:00 EBS 수능연성 <수학I B형>
05:00 탐산전 <영어특혜의 기본I> 20:00 <이적분과 통계기본> <수학II>	21:00 <수학II>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Basic Grammar>	21:00 <수학II>
07:30 <화학I> 21:50 지식채널e	
08:20 탐산전 <생명과학I> 22:00 <생명과학I>	
09:10 <지구과학I> 23:00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10:00 <물리II> 23:55 배움너머	

**EBS플러스2**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20 한자교육 드라마 <여린이 손자범법>
07:30 EBS 생생영어	15:50 사이언스 드라마 <미래를 보는 소년>
08:00 경찰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16:20 초등 2년 여름방학생활
08:30 환경TESATM 대비 강좌	16:40 초등 4년 여름방학생활
09:10 중학@포스 영문법①	17:00 초등 6년 여름방학생활
09:50 중학@포스 영문법②	17:20 초등 6년 여름방학생활
10:30 중학@포스 영문법③	<한문> 18:00 동물대탐험 <구리구리 명명>
11:10 중학@포스 영문법④	18:30 수하의 워리 마네프라(재)
11:50 중학@포스 영문법⑤(재)	18:40 어린이 역사드라마 <절구>
12:30 중학@포스 영문법⑥(재)	19:20 숲 속 친구 피파틀라
13:10 중3 여름방학 특강 <수학>	20:00 월드컵 중계방송
13:50 변변한영어	20:40 초급 한국어 능력 경쟁 시험
14:30 한글이 아호	21:20 중3 여름방학 특강 <영어I~III>(재)
14:50 뽕뽕이랑 남남	23:20 어린이 드라마 <별들의 합창>
15:10 별뽕이랑 팡팡!	23:50 실험관찰 비보트 6-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8일(음 6월 11일 乙酉)

<b>子</b>	36년생 진정으로 알아주는 이가 있다. 48년생 대체적으로 운이 잡힐 것이다. 60년생 처신을 잘 한다면 따르는 이가 많을 것이다. 72년생 수수방관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84년생 너무 왕하면 머지않아 쇠하리라. <b>행운의 숫자 : 01, 12</b>	<b>午</b>	42년생 마음먹고 있었던 바를 확실히 추진해야 할 때다. 54년생 길 길이 바쁘니 핵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66년생 가는 것에 비례해서 돌아 올 것이니라. 78년생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 따르는 것이 도리이다. <b>행운의 숫자 : 43, 16</b>
<b>丑</b>	37년생 훌륭한 결과를 낳았다. 49년생 공중공영의 기반이 성립된다. 61년생 논의가 길어져서 연장되거나 보류될 수다. 73년생 갖으면 가치를 하락 시킬 것이다. 85년생 공중누각에 불과한 허무한 것이다. <b>행운의 숫자 : 35, 52</b>	<b>未</b>	43년생 완성도를 높인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55년생 다급한 나머지 대강 하게 될 것이다. 67년생 가까운 이들 사이에서 인연이 있을 것이다. 79년생 역량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 <b>행운의 숫자 : 97, 05</b>
<b>寅</b>	38년생 결과에 얽매지 말고 최선을 다 하자. 50년생 장애물이 사라지고 뜻한 바를 이루리라. 62년생 화려한 빛깔로 번쩍 번쩍하는 모습이다. 74년생 자신에 관한 얘기를 우연히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리라. <b>행운의 숫자 : 23, 87</b>	<b>申</b>	44년생 상대의 깊은 마음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56년생 허황된 것이니 빨리 접을수록 이익이다. 68년생 평상시대로만 해 나간다면 무난할 것이다. 80년생 훌륭한 것 뒤에는 항상 아류가 따르는 법이다. <b>행운의 숫자 : 56, 84</b>
<b>卯</b>	39년생 조금씩 형편이 나아질 것이니 걱정 말라. 51년생 반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 63년생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선택하기가 애매할 것이다. 75년생 소신껏 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b>행운의 숫자 : 03, 68</b>	<b>酉</b>	45년생 성립 조건들을 마련해 나가는 모습이다. 57년생 겸손과 양보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69년생 구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81년생 낮은 습관은 깨뜨려버려야 하느니라. <b>행운의 숫자 : 49, 77</b>
<b>辰</b>	40년생 정성으로써 최선을 다 하자. 52년생 불안전하게 빨리 하는 것보다 완박하게 천천히 하는 편이 더 낫다. 64년생 망망대해의 일일편주루다. 76년생 두 쪽 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b>행운의 숫자 : 25, 46</b>	<b>戌</b>	46년생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8년생 모아서 이마를 맞고 의논하는 모습이다. 70년생 발을 함부로 하면 화를 입기 쉬운 법이다. 82년생 일시적인 이익을 피하지 말라. <b>행운의 숫자 : 19, 65</b>
<b>巳</b>	41년생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몹시 불만족스럽다. 53년생 너무 앞서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65년생 일이 의외로 잘 풀리게 되는 모습이다. 77년생 큰돈이 들어오거나 큰 규모로 거래할 일이 있다. <b>행운의 숫자 : 81, 39</b>	<b>亥</b>	47년생 길사가 흐르는 물과 같이 거침없이 펼쳐지리라. 59년생 구우일모의 기회이니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71년생 넓은 마당으로 나아가니 운신의 폭이 커지겠다. 83년생 충음을 아껴 써도 허무해가 너무 많다. <b>행운의 숫자 : 73, 96</b>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

**TV 하이라이트**

<b>삼밥의 향연에 빠지다</b>	<b>두 남자의 장호향 맛보기</b>	<b>유씨 부녀의 잃어버린 30년</b>
한국인의 밥상(KBS1 TV 오후 7시30분)은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입맛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삼밥. 싱싱한 채소로 지친 입맛을 돌고 어머니의 손맛 또한 느낄 수 있어 우리의 밥상에 자주 올랐던 ‘삼밥’은 사실 영양가 면에서도 최고다. 현재 30여국 넘는 삼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온다. 종류만큼이나 맛도 다양해서 쓴맛, 매운맛, 단맛, 향으로 입맛에 따라 맞볼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공감이 있는 게 아니라 맛에도 환상의 공감이 존재한다. 고소한 우렁이와 된장이 만나면 담백한 우렁이 삼이 탄생하고, 몸에 좋은 견과류를 장에 넣으면 영양가 만점인 견과류삼이 완성된다. 다양한 삼의 종류와 삼 채소로 맛을 극대화 시키는 삼이 지니고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알아보자.	고향을 부탁해(MBC TV 오후 6시20분) = ‘두 남자의 몸이 좋은 여행’은 제주로 떠나는 기력증진 여행이다. 불거리가 넘쳐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섬 제주에서도 펼쳐지는 기력증진 두 번째 여정. 70대 이상 노인이 70% 이상인 제주 애월읍 장수마을에 한 바탕 건강한 웃음꽃이 핀다. 아름다운 자연과 산해진미가 가득한 제주에서 행복하게 오래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다. ‘잘 먹겠습니다’ 코너가 찾아간 곳은 ‘한국 의 나폴리’ 삼척. 바다를 닮아 아름다운 삼척, 고즈넉한 포구와 기암절벽,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명소. 특히 바다가 흰하 비칠 정도로 맑은 바닷물이 인상적인 곳이다. 웰빙 수산물들의 거장 곱치에서부터 맛갈 나는 오징어 회, 7~8월 동해에서 가장 많이 채취된다는 섬게비빔밥까지, 삼척 장호향에서 맛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EBS TV 밤 9시50분)는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민주 운동가 박종철이 고문을 받아 죽음을 맞게 된 바이다. 1981년 바로 그 밤에서 똑같은 고문을 받게 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유동우. ‘어느 돌맹이의 외침’이라는 노동현장의 체면 수기를 쓴 저자 유동우는 1981년 일명 ‘학림사건(노동자와 학생들이 연합한 민주화 투쟁)’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남영동 대공분실로 잡혀 들어간다.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이라 거짓 자백한 그는 37일 만에 풀려난 뒤 가족을 버리고 홀연히 사라져 버린다. 30여년에 걸친 가혹과 노숙생활로 인해 결국 가정은 파탄 나고 만다. 유동우는 자신의 정선병 때문에 학교도, 꿈도 포기해야만 했던 의도할 유현경에게 이제라도 무릎 꿇어서라도 용서를 받고 싶다.